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15

대자대비로 중생 건지시네

[원문]

관음보살대의왕 (觀音菩薩大醫王) 감로병중법수향 (甘露瓶中法水香) 쇠탁마운생서기 (鑿鑿魔雲生瑞氣) 소제열뇌획청량 (消除熱惱獲清涼) -파계사 원통전

[번역]

중생병 고치는 큰 의사이신 관세음보살님 감로수 병속에 법수 향기로워라 마귀의 구름 벗겨 버리고 서기 살아나게 하시며 모든 번뇌 씻어 버리고 청량함을 얻게 하시네.

[선해(禪解)]

우리는 부처님을 두고 성인(聖人)이라고 부른다. 성인이란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리러 본받을 만한 인간을 말한다. 처음에는 부처님도 성인이 아니라 우리 중생같이 고통을 받고 감정의 굴곡에 쉽게 흔들리는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출가하여 치열하고 씩씩한 정신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와 같이 우리도 부처님처럼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한다면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잠재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불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 생활 속으로 접목시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들은 몸소 체험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깨달음이란 먼 길일 수밖에 없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이유는 바로 마음이란 내면성(內面性)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내면 속에 숨겨진 자질을 발견하여 이를 꾸준히 갈고 닦아야만 비로소 부처님에게 다가갈 수 있다. 고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려 가꾸는가에 달려 있다.

오늘 주련여행은 팔공산 파계사의 원통전이다. 이 사찰은 갖바위로 유명한 대구 팔공산(八公山) 서쪽 기슭에 자리 잡은 동화사(桐華寺)의 말사로서 신라 애장왕(804년)때, 심지(心地)가 창건하고, 1605년(선조 38) 계관(戒寬)이 중창하였으며, 조선 숙종(1695년) 때 현응(玄應)이 삼장하였다. 특히 영조(英祖)의 출생과 관계되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

데 속종의 부탁을 받은 현응은 농산(隴山)과 함께 백일기도를 하였고, 기도가 끝나자 날 농산이 숙빈(淑嬪) 최씨에게 현몽하였으며,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후일의 영조였다는 것이다.

속종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파계사 주변 40리 이내의 조세(租稅)를 받아쓰라고 하였으나 현응은 이를 거절하고 선대의 위패를 모시기를 청하였다. 이는 지방 유림(儒林)의 행패를 막으려는 것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관세음보살상을 개금할 때 불상에서 나온 영조의 어의(御衣)는 이 설화의 신빙성을 더해 준다.

때문에 파계사는 대웅전이 없고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모시고 있는 원통전이 중심법당이다. 이 안에 있는 목조관세음보살 좌상은 보물로서 흠잡을 데 없는 균형미와 화려함이 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

외자(施無畏者), 크게 중생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이익 되게 하는 대비성자(大悲聖者)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주련에 담긴 내용은 중생이 가진 삼독(三毒) 즉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고쳐주는 의사가 바로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씀이다. 이는 바로 현대의 의사와 다를 바가 없으며 한 마디 한 마디 전해주시는 법 또한 법수(法水)처럼 그치지 않고 향기롭다는 뜻이다.

‘쇠탁마운생서기 소제열뇌획청량: 마귀의 구름 벗겨 버리고 서기 살아나게 하시며 모든 번뇌 씻어 버리고 청량함을 얻게 하시네.’

인간의 번뇌는 자신이 만든다. 번뇌란 곧 마음속에 든 마귀의 그림자이며 구름이다. 이를 쫓아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갇든 악도(惡道)의 그림자를 벗겨내어 인간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었던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을 되살려 놓게 하신다는 말씀이다.

이와 같이 길을 잃고 그릇된 길속에서 헤매다가 어둠속에 떨어지는 게 바로 중생이다. 관세음보살님은 이러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혜의 등불을 밝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여 주기 위해 스스로 중생들의 등불이 되셨던 것이다. 참으로 가슴깊이 새겨야 할 전언(傳言)이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은 생사의 흐름 속에 헤매고 있으며 애욕의 바다에 잠겨 무지(無知)와 미망(迷妄)은 열 겹, 스무 겹으로 뒤덮여 있다. 또한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동여맨 채 질혹 같은 어둠속에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 중생은 번뇌가 가리키는 대로 자신도 모르게 오욕에 물들고 취하여 망상을 일으켜 영구한 세월동안 괴로움의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서는 그러한 미혹을 벗어나 중생의 고뇌를 날같이 알고 끊어 윤회의 세계에서 해탈한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대비(大悲)의 경계이다. 따라서 부처님은 중생을 적멸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최고의 진리를 45년 동안 설하셨는데 이러한 부처님의 전언이 오늘 날 사찰속의 주련 속에 곳곳마다 담겨져 있는 것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구독신청·기사제보 02-2004-8200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15

성품 본 사람이 곧 선지식

[원문]

若自明了 不學亦得 不同迷人 不能分別 白妄言 宣佛勅 謗佛妄法 如斯等類 說法如雨 盡是魔說 即非佛說 師是魔王 弟子是魔民 迷人任他指揮 不覺墮生死海 但是不見性人 妄稱是佛 此等眾生 是大罪人 誑他一切眾生 令入魔界 若不見性 說得十二部經教 盡是魔說 魔家眷屬 不是佛家弟子.

스스로 분명히 깨달았다면 배우거나 얻을 것이 없으므로 미혹한 이와는 다르겠지만 흑백도 가릴 줄 모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편다고 망언을 한다면 부처님을 비방하는 허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무리는 아무리 많은 설법을 하더라도 모두 마구니의 소리이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니라. 스승이 악마의 왕이고 제자가 악마의 백성들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들이 시키는대로 하느라 생사의 바다에 빠지는 줄을 알지 못하는구나. 자기의 본성도 보지 못한 이가 망녕되어 스스로를 부처라 말하지만, 이런 중생들은 일체 중생을 속여 악마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큰 죄인이니라. 성품을 보지 못하면 12부경의 가르침을 설하여도 모두 악마의 소리이고 악마의 권속이지 부처님의 제자는 아니니라.

[해설]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인데 부처를 등지고 오랜 생을 살아 온 것으로 인해서 본래는 부처이지만 부처의 삶을 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면 잘못된 믿음입니다. <반야심경>에 '무지역무득(無智亦無得)'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품은, 다시 말해서 우주는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깨닫게 되면 물질이 아니니, 그 어떤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이라는 것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품을 보고 부처가 되면 우주의 실상을 보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생사가 없는 도리를 모르는 분들은 흑백도 가릴 줄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편다고 하면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니 허망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교를 제대로 알고, '용(用)인지 체(體)' 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분이 법을 설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보리달마 면벽 정관지도 (유단택 작)

‘이런 무리는 아무리 많은 설법을 하더라도 모두 마구니의 소리이지 부처님 말씀이 아니니라.’ 여기서 ‘마구니 소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무념(無想無念)으로 용을 삼고 무주(無住: 머무는 바 없는)의 행으로써 법을 설한다 하더라도 군더더기이거늘, 어찌 생사를 초월한 도리를 모르는 이가 설한 것을 법이라 할 수 있는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흑백을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경을 설하면 안 된다고 달마 스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풍이 콩나물 공장과 인연이 되면 콩나물이 되고, 두부 공장 인연이 되면 두부가 되고, 떡 빗감간과 인연이 되면 떡고물이 되고, 부지런한 농부를 만나면 수심 배의 콩으로 탄생되고, 시멘트 바닥에 뿌려지면 말라 없어지듯이 생사를 떠난 자리를 체로 삼고 설하지 못하면 자신도 윤회를 면치 못할 것이며 가르침을 받는 자 또한 생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눈 먼 맹인이 보지 못하는 맹인을 이끄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선지식을 만나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화두 또는 염불을 하고 진언을 해야 외도(外道)가 아니고 정도라는 얘깁니다. 성품을 보고 하는 수행이 아니면 모두 마구니입니다.

따라서 성품을 보지 못한 자가 '12부경(부처님께서 일생을 통해 법문하신 경)'을 설하게 되면 어두운 중생들을 속여서 악마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큰 죄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라 하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본래 뜻을 이해하며 생사가 없는 자리를 중독해야만 부처님의 법을 이어 받은 제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악마이며 이 또한 악마의 소리일 것입니다. 선지식을 만나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생사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흑백도 가릴 줄 모르면서 무엇이 의지하여 생사를 면하겠느냐.’

이 말씀은 정확하게 어디에 마음자리를 두고 정진하는 것인지를 뽐낼 때 하는 얘깁니다.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정진을 해야 하겠습니까? 본래의 마음자리를 떠난 생각은 모두 번뇌이고,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가 진짜 부처님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리가 부처님임을 믿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화두를 듣거나 또는 염불을 하는 것이 바로 성품에 마음을 두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행을 하든 생각 이전의 자리에 의지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정진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 정주 혜은사 주지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제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지사명, 연락처, 지사명, 연락처. Lists regional offices and their contact numbers.

동일한의원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250-14 불기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코막힘 한방(韓方)으로 해결!!

코막힘, 비염, 축농증 답답하시죠?

이제 다년간의 연구와 연구성과를 거둔 죽전네거리 동일한의원에서 한방(韓方)으로 치료해 보세요!!

코가 정말 시원합니다

한의학박사 보건의학박사 원장 노동일 (전)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매주 수요일 오후 휴진)

동일한의원 50M 죽전네거리 연지카바레 여촌마을횡침 구병원 두류네거리 성서IC ☎ 053)552-8800